

# 제주도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ves of female politicians of Cheju island

제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육대학원생,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직원 김 명 실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혜 연\*

Dept. of Home Economics &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a Member of Staff of The Grand National Party Cheju Office : Myung-Sil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ye-Yeon Kim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olitical activity of women is relatively low.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social-cultural attitude that confines women's role to housewives, rather than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political activities itself.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nhanc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women by examining and providing the practical informations related to the hardships that are experienced by women who are pursuing a career both as a politician as well as a housewife.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women who are assuming chief executives positions in organizations that are related to political activity, including local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A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8 female politicians. The contents of the study mostly consists of the personal situations (related to house lives) of these wome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 본 논문은 2004년도 제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김혜연 (morning@cheju.ac.kr)

several times.

First, the political careers of these women tended to start passively, rather than voluntarily.

Second, the negative attitudes that were initially displayed by the family members and close relatives had changed positively through out the course of time. Close relatives, parents/parents-in-law were likely to become helpers of child care and household labor. The husband was likely to be a supporter of the wife's political career, and the children started to understand the roles of their mother as they grew up.

Third, the female politicians perceived that the main impediments of women pursuing political careers were the sexually discriminating culture, rather than their own ability.

Fourth, the fact that these women had to spend a lot of time outside the house has worsened the role conflict and difficulties of these women who are required to assume dual-roles. Furthermore, the difficulties that are faced publicly and privately has increased the psychological burdens of these women, since politicians, in general, are people who need to maintain their public image.

Key Words : 여성의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y of women), 여성정치인(female politician), 이중역할(dual roles)

## I. 문제의 제기

여성은 흔히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는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사회변화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성이 인류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로 역할을 한 예가 많으며, 현재도 그러하다<sup>1)</sup>. 여성은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수

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97년 유네스코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32위, 남녀간 성취수준의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성별 평등지수는 34위인 반면, 전문직, 관리직 및 의회의 석에서의 여성비율을 나타내는 성별권한척도는 73위였다. 1995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국제연합개발계획)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GDP는 15였지만,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정치 및 경제분야에의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척도)은 조사에 응한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의 2003년 자료에서도 보면 여성의원의 비율이 스웨덴 45.3%, 덴마크 38%, 핀

1) 서구의 예로는 사바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영국의 여왕들, 프랑스의 잔다르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라시대에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60년 스리랑카의 반다라나이케 여사는 세계 최초의 여성수상이 되었으며, 그 후 노르웨이의 브룬트하트 여성수상, 아이슬란드의 최초 민선 여성대통령, 일본의 사회당 당수 도이 여사,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 인도의 인디라 간디 여수상, 이스라엘의 골다메이어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이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출된 바가 있다.

란드 36.5%였고, 아시아권에서도 베트남 27.3%, 중국 21.8%, 파키스탄 21.1%, 필리핀 17.8%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는 세계적인 수준(평균 1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극히 낮아서 1948년 초대부터 1992년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이며 그 중 제주지역은 0%였다. 15대 국회에서는 3%(9명)였고, 16대 국회에서 5.9%(16명), 17대 국회에서 지역구 10명, 전국구 29명 등 총 39명의 여성의원 비율이 13%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각 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 자료들은 우리나라 여성이 전문직, 관리직 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 배제됨으로써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 리더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여성의 정치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여성의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성들 자신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면서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적인 것으로 한정할 뿐 아니라 여성과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관념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따라서 여성정치인은 여성으로서 정치생활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실제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여성들의 이중역할 부담 등과 달리 여성 정치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활동 및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당구조 및 사회적 요인들(이병화, 1990; 홍미화, 1998; 이진, 2000; 강근숙, 2001; 백영옥, 2001; 진은희, 2001; 김지선, 2002)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여성정치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정치인의 역할부담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인과 여성정치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1) 외국의 정치참여 실태

현대 사회에서 여성 지위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여성들의 정치 및 공공분야에 대한 진출 비율이라면 최근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 <표 1>에서 잘 나타난다. IPU가 조사한 자료 <표 2>에서도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들에서 보면 북유럽 뿐 아니라 미

국, 캐나다 등의 선진 서구 국가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가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정치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범준, 1998).

미국의 경우 첫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여성표의 영향력이 보다 크고, 따라서 여성후보를 내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진출시키게 되었다. 둘째,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재단의 적극적 후원이 있었다. 진보적이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들의 선거자금과 선거운동을 지원해주는 재단이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었는데, 엘리너 루즈벨트 재단, 민주당내 여성의원위원회,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와 공화당에서 결성한 위시(Women in the Senate and House : WISH)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여성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전국 여성정치연맹 이후 여성유권자 연

<표 1> OECD 국가의 HDI, GDI, GEM(2000년도)

(단위 : 위, %)

항 목 국 가	인간개발 지수(HDI)	여성개발 지수(GDI)	여성권한 척도(GEM)	국회여성 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한국	31	30	63	4.0	4.7	31.9
호주	4	3	11	25.1	24.0	44.4
오스트리아	16	16	12	25.1	27.3	47.3
벨기에	7	7	10	24.9	30.2	47.1
캐나다	1	1	8	22.7	37.3	52.2
덴마크	15	14	4	37.4	23.1	54.1
프랑스	12	11	-	36.5	25.6	62.7
독일	14	15	6	9.1	-	-
아이슬란드	5	5	2	6.3	22.0	44.9
이탈리아	19	19	31	10.0	53.8	17.8
일본	9	9	41	9.0	9.5	44.0
멕시코	55	50	3	18.0	20.7	40.2
네덜란드	8	8	7	32.9	22.8	45.7
뉴질랜드	20	17	9	29.2	36.6	51.5
노르웨이	2	2	1	36.4	30.6	58.5
스웨덴	6	6	3	42.7	27.4	48.6
스위스	13	13	14	22.4	20.1	39.9
영국	10	10	15	17.1	33.0	44.7
미국	3	4	13	12.5	44.4	53.4
헝가리	43	38	42	33.6	26.6	49.0

출처 :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국회여성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은 여성권한척도 (GEM)에 포함된 요소.

맹, 전국여성조직, 여성선거운동재단, 미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영향력있는 여성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여성후보자의 발굴에서부터 후보자 교육 및 훈련,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수, 유권자 의식교육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육성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스웨덴과 영국은 사회 내지 정치 환경의 변화와 민간단체 등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장공자, 1998). 스웨덴은 의회의석의 42%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여성당(Women's party)에 대한 활발한 논의, 평등업무국(Equality Affairs Division) 및 평등업무 담당 장관(Minister for Equality Affairs) 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그리고 여성비율 할당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경우에도 노동당내 고위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여성후보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여성정치 지망자 후원이나 여성들의 정치참여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국과 스웨덴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1945년 선거법 개정으로 일본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인정되었고, 1946년 4월 실시된 제 1회 중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여성유권자는 약 2,056만 명으로 이 중 67%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중의원 여성입후보자 83명 중 39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여성의 정치참여는 초기에 비해서는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정희, 1990). 그 이유로는 우선 일본 여성들은 단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나, 여성 후보를 위한 선거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며, 선거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후보는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거나 정당후보로 인식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개발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많은 여성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와 정당의 공천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은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지배를 받아

<표 2>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현황

항 목 국 가	전체의석	여성의원수	비율(%)
스웨덴	349	149	42.7
덴마크	179	67	37.4
핀란드	200	73	36.5
노르웨이	165	60	36.4
네덜란드	150	54	36.0
아이슬란드	63	22	34.9
독 일	669	207	30.9
뉴질랜드	120	37	30.8
모잠비크	250	75	30.0
남아프리카	399	119	29.8
쿠 바	601	166	27.6
베트남	450	117	26.0
벨기에	150	35	23.3
호 주	148	34	23.0
스위스	200	46	23.0
중 국	2984	650	21.8
북 한	687	138	20.1
영 국	659	118	17.9
미 국	435	61	14.0
프랑스	577	63	10.9
남 한	273	17(15)	6.2(5.5)
일 본	480	35	7.3
브라질	513	29	5.7

출처: IPU(2001년, 7월). [www.ipu.org/wmn-e/classif.htm](http://www.ipu.org/wmn-e/classif.htm)

온 사회로 가족의 역할을 중요시 생각하는 가족국가 사회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여성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였으며, 지금도 여성이 사회로 나서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마련된 여성당선 보장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정치참여실태

1945년 해방 이후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 왔으나 사실상 여성

의 의회정치참여는 극히 저조하였다. 제헌국회부터 7대 국회까지는 각 국회별로 1명에서 3명까지의 여성의원 밖에 없었으며, 1971년 8대 국회부터 여성의원 수의 수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가 되면서 여성의원 수의 수는 다시 감소하였고, 최근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흡하긴 해도 17대 국회에서 여성이 의회 의석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정계 진출이 증가하였다<표 3, 표 4 참조>.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나 전국구 비례대표제 등을 제외하고 여성 자신의 지역구 활동이나 정당

<표 3> 역대 여성의원수의 비율

국회	총 의원 수	총 여성의원 수	직선에 의한 여성의원 수	전국구 여성의원 수	통일주체 국민회의 진출 여성의원 수	국회내 전체 여성의원 비율	직선·여성의원 비율
1대	200	1	1			0.5	0.5
2대	210	2	2			0.9	0.9
3대	203	1	1			0.5	0.5
4대	233	3	3			1.3	1.3
5대	233	1	1			0.4	0.4
6대	175	2	1	1		1.1	0.6
7대	175	3	1	2		1.7	0.6
8대	204	5	0	5		2.5	
9대	219	12	2		10	5.5	0.9
10대	231	8	1		7	3.5	0.4
11대	276	9	1	8		3.3	0.4
12대	276	8	2	6		2.9	0.7
13대	299	6	0	6		2.0	
14대	299	8	1	7		2.7	0.3
15대	299	9	2	7		3.0	0.6
16대	273	16	5	11		5.9	2.2
17대	299	39	10	29		13.0	3.3
합계	4104	133	34	82	17	2.9	0.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총람(1대-17대).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 여성 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표 4>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연도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전체	여성 의원	비율 (%)
1995	-	-	-	972	13	1.3	4,514	71	1.6
1998	299	11	3.6	690	41	5.8	3,490	56	1.4
2000	273	17	6.2	-	-	-	-	-	-
2002	273	16	5.9	689	63	9.2	3,485	77	2.2
2004	299	39	13	-	-	-	-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4. <http://www.nec.go.kr/>

활동에 의한 정치참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sup>.

한편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자가 많은 섬으로 알려져 왔는데, 여성의 수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제주 여성의 경제적 활동비율과 경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아 제주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의 높은 사회적 활동과 지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정치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5 참조>.

제주도는 여성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예가 없으며, 기초의회보다 광역의회의 참여율이 높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 비례대표에 의하지 않고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미약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여성들이 소수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5년 선거보다 1998년 선거에서 지역구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7명으로 출마했던 현애자후보가 제주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표 5> 제주지역 성별 지방의회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시행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광역의회	1991	49	0	17	0
	1995	46(4)	0(1)	17(3)	0(1)
	1998	37(4)	1(2)	14(3)	0(1)
	2002	38(3)	1(4)	16(1)	0(2)
기초의회	1991	94	1	51	0
	1995	123	1	51	0
	1998	87	0	41	0
	2002	85	0	38	0

출처: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2000), 2000 제주여성통계연보.

제주도: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선거통계자료 1995-2002.

서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www.nec.go.kr](http://www.nec.go.kr)

( )안의 숫자는 비례대표 당선자

2)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를 들자면, 1945년 8월 18일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이 결성되고 임영신씨가 초대 당수로 선출되었다. 박순천 의원은 제헌국회선거부터 6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출마하여 4번 당선되었고 7대 국회에서는 전국구의원으로 의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중 최다선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김철안 의원은 1954년 3대 국회선거에서 전국에서 당선득표율이 최고로 높은 4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1990년부터 실시된 지방선거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은 국회 참여율보다 낮다. 특히 기초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은 2%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활동의 주체인 여성들이 생활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초기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은 전국 지방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성의 다른 사회적 활동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방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요인

여성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여성 즉, 정치를 할 능력과 욕망을 가지고 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며 공직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표본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로 간주되곤 하였다. 실제로 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의 독점무대였고,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대부분 금세기에 시작되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이 낮은 것은 여러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가장 흔히 논의되는 요인은 전통적으로 정치를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

적 관념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전통은 정치가 남성의 고유영역이라는 사회적 관념의 기초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치역할을 여성의 역할에서 배제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은 흔히 정치인의 특성으로 인식되는 야심적, 전략적, 조직적 성격을 남성보다 덜 가지고 있어 정치에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가로 역할을 할 만한 여성도 없다는 식의 논리로 귀결되기도 한다(소정희, 1990). 실제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능력있는 사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 있으며, 자녀출산과 양육 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에서조차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주요 장애요인이다(김준섭, 2003).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역량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하고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타파하는 데에는 정당의 역할과 사회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은 여성공약을 내걸고 여성표를 모으는 데 급급하였으며, 실제로 여성후보자의 체계적인 양성 및 후보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여성은 스스로가 후보로 나서기를 꺼렸고, 실제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족<sup>3)</sup>, 정치경력의 부재 등으로 정당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선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천과정에 있어

3) 여성은 선거를 위한 선거를 위한 자금동원력이 남성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여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다. 여성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면 남편이나 친척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선거자금조달의 어려움 뿐 아니라 그 한계가 뚜렷하다. 김원홍(1996)의 연구에 따르면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중 유급 선거운동원을 선거법에 근거하여 모두 활용하였다고 한 사람은 20명 중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용의 부담이었고, 선거 기간 중 가장 큰 애로점이 선거자금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평균 4,8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선거비용 8,100만원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1/200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10억 낙선, 20억 당선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할 정도로 많은 선거자금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서는 경험부족, 당선 불가 등을 내세우며 여성을 공천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다. 또한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한 지역구당 가장 득표가 많은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김원홍, 1996; 김지선, 2002). 이러한 불리한 점을 인식하고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여성 30%의 할당제가 법제화되어 지난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 국회진출이 다소 활발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여성자신보다는 여성의 가정생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정치활동은 취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집안일과 사회활동이라는 이중의 역할부담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여성에게 기본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미국의 Julia Butler Hansen 의원과 같은 여성의원은 결혼을 한 경우 개인적 생활과 공무와의 조화와 함께 자녀가 어릴 경우 매일 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자(1992)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육아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가정생활, 특히 육아에 따른 부담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에 남성들은 대개 20대 후반부터 진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성들의 경우는 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단위의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의 선거에서도 비슷하였다. 이는 여성의원이 되려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집을 떠난 이후인 40대 이후에야 의회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조직의 상층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개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

는데 이는 주요한 가사부담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당시의 초선 나이는 평균적으로 지역구는 47세 전국구는 50세였다. 의원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막내자녀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원(14명)의 자녀 중 막내가 대학이상인 의원이 7명, 고등학교 재학이 1명, 중학교 재학 2명, 초등학교 재학 1명, 그리고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의원이 3명으로 여성들은 젊어서부터 의원직에 총원되기 보다는 대체로 자녀들이 성장한 중년 이후에 의원생활에 입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즉 가사와 육아 등 성적인 분업체제에서 비롯되는 특성과 부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하여 정계에 늦게 진출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조직에 참여하더라도 재임기간이 짧아 높은 정치적 지위나 정당간부에 추천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 3. 여성정치인의 개인적 배경 및 가정생활

여성정치인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실제로 많지 않으며,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정치인의 개인적 배경이나 가정생활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가정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여성의 의회진출은 귀족출신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도 전후 선출된 여성의원의 적지 않은 숫자가 상류 또는 귀족출신이었다. 소정희(1990)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지역구 여성 의원의 대부분이 지방의 중산층 가정출신이었다. 그 이유는 프랑

스의 경우 상류층일수록 기혼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은 거의 중산층 출신인 데에 따른 것이다. 즉 여성정치인의 출현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에 따라 소위 전문가 혹은 지식인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정치인의 학력이 높은 수준이어서 여성정치인의 사회적 배경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홍(1996)의 연구에서는 제헌국회에서 15대 여성 국회의원 중 지역구는 70%가 대졸이상이었고, 전국구 의원은 87.8%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염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지방의회 후보자 21명의 학력 분포를 보면 대학원졸 1명, 대졸 5명, 전문대졸 2명, 대퇴 2명, 고졸 8명, 중졸 3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개인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정적 배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선진국에서 행한 여성 정치인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주의회 여성의원들의 경우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노르웨이의 여성정치인들도 역시 부모나 남편 등 가족구성원 중에 공직 또는 당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소정희, 1990).

또한 정치제도나 경제개발상태와 상관없이 여성이 정치계에 진출하는 전통적 수단으로 과부계승(Widow's succession)이 있다. 과부계승은 정치가 남편의 사망 후 그 미망인이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례로 영국,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나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17-1964년 사이의 미국 상원 여성의원 10명 중 3명이 남편의 사망 후 유업을 계승한 사례이며, 실제로 1949년까

지는 미국연방의회의 여성 의석 중 대부분이 과부계승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후 실시된 선거에서 여성들이 남편 또는 남자형제를 대신하여 선거에 입후보로 나서기도 하였다.

Bullock과 Hayes의 연구(1972)에 의하면 미국 하원 여성의원의 41%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을 채우기 위해 의회에 진출했다(소정희, 1990에서 재인용). 또는 남편이 정치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Edith Green과 Julia Butler Hansen 의원의 경우는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여성정치인은 가족, 형제, 남편의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를 제공받은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선구자세대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19년 3.1운동으로, 여성의 학교교육, 애국심, 신앙심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치현장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 2세대 지역구 여성의원들은 그들이 해방 직후 정치혼란기와 동족상잔의 6.25사변의 쓰라린 경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치의식화가 된 것이 정치입문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정당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 의회에 진출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구 여성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의 여성국장직을 역임한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면 정치입문의 자생적 동기 없이 의회에 진출한 사례가 대다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정희, 1990). 최근에는 대학시절의 활동과 사회운동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열린 우리당의 김현미, 이미경, 한명숙 의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가정적 배경이 여성정치인의 출현에

는 많은 관련이 있다. 김원홍(1996)의 연구에서 보면 15대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총 20명의 여성후보 중 과거나 현재 가족이나 친지 중 정치인이 있었다는 후보자가 10명이나 되어 가족 중 정치인이 있는 것이 정치에 나서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경자 의원은 6공 시절 자유민주연합 박철언 의원의 부인으로 박의원이 슬럼프인 사건으로 감옥에 구속되자 남편에 대한 명예 회복차 대구시 수성갑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소정희(1990)의 연구에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들은 결혼당시 남편의 이해와 협조를 받았다고 한다. 성공적 사회생활에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기본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3대와 4대 국회선거에 입선한 김철안 의원은 자신의 정치입문 성공이 “남편을 잘 만난 덕”이라고 했고 야당 당수직을 역임한 박순천 의원 역시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의 선거 입후보 결정에서 가족이나 남편의 협조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대로 후보자의 대부분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협조를 받고 있었다. 염미경(1997)의 연구에서 광주·전남지역 여성후보자는 모두가 기혼자로 나타났다. 이 중 3명의 후보가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 남편 직업을 살펴보면 교수 2명, 고급공무원 1명, 개인사업 4명, 회사원 3명 등 분포가 다양했다. 남편이 있는 16명의 후보자들 중 남편이 후보의 지방의회 입후보에 적극적 지원 및 협조를 했다고 답한 경우가 12명, 배려 또는 간접적으로 협조한 경우가 2명이었다. 2명의 후보는 처음에는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후보자 등록 후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보자 중 전남 농촌지역에 입후보한 2명의 후보자는 “남편이 생존해

있었다면 나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이 사회활동 특히 정치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이 여성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외에 가족 특히, 남편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여성으로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도의 여성정치인이다. 제주도 내에 현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정당 활동 종사자 및 정치와 관련한 여성단체장을 여성정치인의 대상에 한정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졌고, 정치가에 입문할 가능성이 높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연구의 주된 분석 초점은 여성정치인의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독신인 여성정치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정치활동에 대한 뜻이 없이 단체생활이나 정당에 종사하는 여성정치인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8명의 여성정치인을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이용한 사례 연구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여성 정치인은 연구자와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알고 지낸 분이 많았다. 이들과 평소에도 항상 접촉을 하고 있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찰과 함께 수시로 의견을 나누었다. 본격적인

사례연구를 위해 사전 약속을 하여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하는 말을 직접 받아 적거나, 녹음을 병행하였다. 정치인들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공식 면담 이외 여러 차례의 전화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 2. 조사내용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을 실시한 내용은 크게 개인의 일반적 사항, 가정생활 및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일반적 사항은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배우자, 자녀, 결혼년도, 소득 등 출신배경과 가정생활의 일반적인 것을 질문하였고 정치적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입문과 관련하여 입문시기, 입문 동기 등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가정생활은 집안일, 자녀돌보기, 경조사 및 그 외 일 등의 수행방식, 주된 책임자와 역할분담 및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

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들의 연령은 다양하여 3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의 연령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직, 공무원, 농업(농민운동가)이 각 1명씩이었으며, 퇴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을 중퇴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이상이고 석사인 경우도 있어 염미경(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었다. 자녀 수는 2-3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4명인 경우도 있었다. 막내 연령은 취학전의 자녀를 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모두 출가한 경우도 있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연령	학력	정당활동 기간(년)	결혼 년도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	자녀수	막내 연령	월평균 소득 (만원)	월평균 생활비 (만원)
1	50	대졸	16	1981	53	교육직	3명	24세	700	350
2	35	대졸	10	1994	38	자영업	1명	4세	300	200
3	54	석사	9	1976	57	공무원	4명	9세	500	300
4	33	대학원수료	11	1996	40	사업	2명	7세	400	200
5	65	대졸	13	1967	67	퇴임	3명	32세	600	200
6	43	대중퇴	4	1991	43	농민	3명	5세	250	150
7	55	석사	2.6	1975	56	상업	2명	27세	200	100
8	63	대중퇴	30	1962	68	자영업	3명	34세	1,000	100

## 2)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정당 활동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30년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차이가 많았다. 현재 정당 활동을 하는 데까지 직업 경력을 살펴보면 여성정치인들은 직업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전혀 없었다. 단지 (사례 1), (사례 3) 그리고 (사례 8)의 경우는 일정 기간 주부로서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었다. (사례 3)과 (사례 7)은 전직이 교사였으며, (사례 6)은 건강상의 이유로 문예활동을 중단하고 농민활동을 계속하다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들은 스스로 정치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학교 때 ‘학생회장’ 출마를 계기로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사례 4)와 ‘단체장’ 생활을 하다가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사례 8)의 두 경우에서만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데 개인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례 8)의 경우 자신이 정치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일정 기간 단체장 생활을 그만두었던 기간이 있어 가정생활의 영향을 받았다.

“단체장 생활 한지는 오래되었지 내가 회장을 30대에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만두고 가정에 들어갔다가 내가 50대가 넘어가지고 다시 사회에 나온 거지. 30대에 했었지만 중간에 올 스톱해 놓고 집으로 들어갔었으니깐..”(사례 8)

따라서 (사례 4)의 한 경우만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정치활동을 자신에게 맞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정치활동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교 3학년 1994년도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을 통해서 하면서 매리트를 느끼고 그 당시 신한국당에서 공채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내 적성에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1996년 24살에 공채를 통해서 들어간거죠”(사례 4)

위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정치인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거절하기 어려우니 좀 해보다가 그만두겠다는 생각 하에 정치활동을 시작한 소극적 경우가 많았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시작했지. 아는 사람 부탁인데 거절 못하고.. 경행 시작해신디 지금까지 일하게 된 계기가 된거지”(사례 1)

“아는 분이 정당 지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성 조직을 관장하고 리드해줄만한 사람이 없다. 처음으로 그런 권유를 받은 거죠.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관심도 없었고, 한 한달 동안 계속 권유를 받았고 나중에는 거절하기도 참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사례 3)

여성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세 경우 (사례 1, 사례 7, 사례 8), “조금 냉담”(사례 5), “놀라워했다”(사례 3)는 약한 부정이 두 경우였다. (사례 2)는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사례 4)만이 유일하게 주변 사람들이 찬성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소정희(1990)의 연구에서처럼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정치인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남편이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다고 해도 남편이 권유 내지

도와주는 경우, 힘을 얻었다. 이는 여성정치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적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여성, 예를 들어 취업여성에게 배우자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김준섭, 2003; 염미경, 1997)과 맥을 같이 한다.

“처음에 남편이 뭐 그런걸 하나? 아직 애들도 어리고 한데...남편도 나중에는 당신 하고 싶으면 해라 이 정도까지 되었다. 남편은 긍정적이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도와주고”..(사례 3)

“처음에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어..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사례 8)

“남편은 함께 활동하며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힘을 모으던 동지였기에 제가 결심하는데 가장 독려하고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도와준 편입니다.”(사례 6)

여성정치인의 남편은 이해와 협조적 태도로 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일 외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부인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이며 유익한 외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의 인맥이 부인의 정치활동에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소정희, 1990; 염미경, 1997).

## 2.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

### 1) 집안일의 수행방식

여성이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집안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시댁, 친정

등이나 도움을 주는 분을 고용하는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에는 뭐 다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일에 대해서 협조적이세요. 친정어머니는 서울에 계신데.. 딸이 바쁘니까 김치를 해서 서울에서 보내주시고.” (사례 3)

더욱이 정치활동으로 인해 외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긴 경우 집안일은 여성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집은 제주이고 서울에서 국회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 생활을 합니다. 식구들은 모두 제주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 아이들, 식구들과 교감하는 것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 집에 내려가 하루 정도를 아이들과 보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당선이 된 후 아이들 문제에서부터 집안일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6)

그러나 제주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여성정치인의 경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남편과 자녀 등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사례 1, 사례 3, 사례 5),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쓴다는(사례 2)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사회활동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식사를 집에서 별로 안하고, 나다니면서 먹으니까”(사례 7)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경우 집안일은 집에

돌아와 한다든지 혹은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도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데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 해도 자녀는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중요한 집안일 영역이다. 취업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모두 취업시간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역할 갈등을 다루고 있다(김윤주, 1997; 정선화, 1994).

우리나라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문제는 가족, 친지에게 위임하여 해결하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유료 개별보육(파출부, 가정부 등)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김윤주, 1997).

여성 정치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남편, 시댁, 친정 등의 친척관계가 주요한 자녀양육의 해결 체계로 등장한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정치인의 경우 공인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문제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생활의 노출 등을 의식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다시 말해 취업여성들은 가족, 친지 이외에 비용, 편리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유료 개별보육 및 기타 민간 시설 이용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성 정치인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는 것이다.

“애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맡겨가지고 데려오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주변에 피해가 가고 욱먹을까봐.. 딱 저는 욱먹기 싫어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고..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신경써야 하니깐..”(사례 4)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분담하게 한다

든지 혹은 아이들끼리 서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9살 꼬마는 주로 저녁에 집에 간 다음이나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아이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혼자해요. 어릴 때부터 혼련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안두고. 우리 큰 아들이 어릴 때 일하는 사람을 데려서 해봤더니 그것도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약간 비능률적인 면도 많고. 오히려 내가 쫓겨나도 가족이 협력체제로 청소를 다 나눠서 해요. 누구는 걸레질... 분담을 해서. 식사 같은 것도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바쁘니깐. 반찬은 어디 있다는 등 사실은 형편없는 엄마죠”(사례3)

위의 사례는 여성정치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의해 초래된 극단적인 집안일의 수행방식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집안일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님 등이 전담해주는 취업여성 내지 여성 정치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드문 해결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즉 제주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예로부터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며, 유교적 관념을 기초로 한 가족공동체 및 자녀와의 동일시 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로 인해 제주도 여성은 집안일에 대한 수행표준이나 가치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경향이 있고, 돌보는 사람 없이 자녀들이 아이들끼리 혹은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집안일을 분담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이 한 가계를 이루는 타 지역과 달리 개인이 각각 개별 가계를 이루는 제주도 가족의 독립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혜연, 1995, 1996). 따라서 제주도 여성정치인이 자녀양육의 문제를 자녀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배경적 요인과 함께 제주도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주도는 경조사 및 제사 등의 의례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송성대, 1996), 이는 가정에서의 주요 행사이다. 남성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소위 ‘얼굴만 내비치거나’ ‘돈봉투로 체면을 차리는’ 일로 참여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의례적 행사에서의 참여는 참석으로 그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가사일을 분담해야 하므로 여성 정치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금은 괜찮지만 초창기, 그러니깐 내가 일을 처음 시작한 때에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은 대소사들이 식당문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식당문화도 아니었고 하니깐 그런 것에서 조금 책임을 느끼고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이제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또 미안한 마음, 어른들께는 죄송스런 마음들이었지.”(사례 8)

오늘날 제주도에 ‘대소사’는 여성들끼리의 관계망을 이용한 ‘품앗이’를 통해 많은 부분 해결되며, 사설 식당이나 상점에서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가사일은 가정외부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는 ‘가사노동의 시장화’ 내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문숙재, 1990).

그러나 여성들간의 서비스 교환인 ‘품앗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지원 체계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집안 어른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심리적 갈등은 여성 정치인이 극복해야 할 여성으로서의 이중 부담인 셈이다.

## 2)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

앞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인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현재 부인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남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지지자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정치활동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정치생활에 대한 지지자였던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협조자로 표현되었다.

집안일을 분담해주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빨래하고 넣고 개고. 청소. 설거지. 거의 다 하는 편. 집에 빨리 오면 거의 다하는 편”(사례 4)이거나 “청소나 설거지” 등의 집안일(사례 1)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남편이 적극적으로 성역할의 경계를 넘어 집안일의 분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별로 도와주지 않거나”(사례 1) “가끔 쓰레기 버려주고, 아이들 챙겨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더라도(사례 2)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여성정치인은 없었다.

이는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집안일 부담이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측면(김혜연, 1995; 문숙재, 1990)인 경우와 다소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정치라는 ‘특별한 활동’을 해주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 부담을 기대하지 않는 제주도 여성의 특징(김혜연, 1995)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남편과의 생활에서 여성정치인이 가장 신경을 쓴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흔히 표현하기 쉬운 태도일 수 있는 ‘식사 내지 건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집안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식사”(사례 8)

“남편에게 옷 잘 챙겨주고. 될 수 있으면 아침을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하죠”(사례 3)

“나이가 들면서 건강”(사례 5)

(사례 3)의 진술에서도 조금 나타나지만 여성정치인은 자신이 공인이고 정치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에서 남편이 보여지는 모습, 부인과의 비교에서 올 수 있는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와이프가 잘 챙겨주는가라는 특히 보여지는 것에 아직은 신경이 갑니다”(사례 2)

“워낙에 바깥 생활만 하다보니깐 나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나로 인해 기죽지 않을까 상대적인 열등감. 이게 제일 극복하기 힘든 과제..”(사례 4)

이것은 서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부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가정내 외에서 훨씬 조심스런 생활을 하게 된다(김혜연, 1995)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 여성정치인이 있는 반면, 방임형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여성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로 인해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기 쉬운데, 남편 역시 바쁜 생활을 할 경우 각자 서로에게 신경을 거의 못쓰고 사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 가족은 완전 독립가족이라. 따로따로가 일이 더 많고”(사례 8)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보다 낮기 쉽고, 취업 여성의 남편 역시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과 수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박언주, 1995)과 유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남편과의 생활은 남편이 성인이라는 점에서 부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가정생활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여성이 가정내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회활동을 할 경우 부딪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자녀와의 문제이다.

자녀는 무엇보다 성인이 아니므로 어른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차적인 책임자로 간주되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경우 자녀양육, 교육 및 대화 등의 여러 자녀와의 생활문제는 이중역할에서 비롯되는 역할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와 관련된 대리양육자 혹은 위탁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고민이 많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은 이중역할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를 비롯해 부모-자녀관계의 소원, 성격형성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걱정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윤주, 1997).

“우리 꼬맹이한테도 미안한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집에 없는 거. 고 녀석으로써도 제일 쯤.. 학교 갔다 와서 올 때 맞아줄 수 없고.. 집에 있으면서 간식도 챙겨주지 못하는. 자상하게 못해주는게 미안하죠”(사례 3)

“일단 엄마가 없다보니깐 애내들이 엄마가 없는 시간 동안 그게 한 4-5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 시간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잘못되게 어울려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공부나 학습이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근데 제일 걱정되는게 그런데 어울려 다녀서 나쁜 짓 하지 않을까?”(사례 4)

여성 정치인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며, 이 때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주된 상담자가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주로 대화로써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합니다.”(사례 1)

“주로 대화를 하는 것 등으로 자녀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고. 큰 일은 남편과 의논하고 결정하고”(사례 3)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한편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존재이지만, 성장한 자녀들은 집안일의 주된 분담자이기도 하며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정치인에게 남편에 이은 두 번째의 지지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큰 애들은 굉장히 좀 프라이드로 생각을 해요.. 엄마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당당하게 일 하는 게 참 좋다고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죠.. 우리 꼬맹이는 불만이에요. 엄마가 없으니깐.. 엄마 언젠가 다른 애들 엄마처럼 집에 있어주고, 또 제일 미안한게 학교 무슨 행사에 잘 못가주고 하니깐. 엄마 오라고 할 때 잘 못가고 이러니깐.. 다른 애들 엄마처럼 학교에도 자주 오고 하길 바라는 것 같다.”(사례 3)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사당을 데리고 간다거나, 내가 근무했던 중앙당 사무실에 데리고 간다거나.. 행사나 이런거 할 때 남편이 자꾸 데리고 와서 엄마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죠.. 7살부터는 한나라당 다닌다..국회에서 일을 한다.. 나

역시 애들한테 엄마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아무나 다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 주다 보니깐 애들은 엄마가 일 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고. 가끔 선거 때 한나라당이 잘 안되면 한나라당 망했다며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딸 속상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애들은 이제 인식을 해요.”(사례 4)

“아이들은 엄마가 능력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가 좀 힘들니다 만은 너무 빠지는 것은 좀 원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엄마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정당생활을 하면서 엄마와 같이 어떤 곳에 가서 봤다든지 그런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사례 5)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정치인은 남편과 자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인이 남편과 자녀와의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중역할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이었다.

“남편식사를 잘 챙겨주지 못한 점과 다른 엄마들처럼 밤늦게라도 잘 놀아주지 못한 점이 가장 힘이 들고”(사례 2)

“아무래도 가족,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못해주는게 제일 미안하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사례 3)

이는 여성 정치인이 정치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의한 이중역할에서 비롯된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취업 여성이 취업활동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데에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은 취업 여성이 경험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측면, 즉 체면

이나 이미지라는 부가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있어 더욱 심리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3.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 1)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은 조사대상자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으로서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을 양립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정치생활이 가사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어려운 점(이정자, 1992)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정당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할까.. 본격적으로 잘 한다고 해야 하나...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었지만은 아직도 여성으로서는 하기에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역시 그 여성이라는 것은 주부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뒤에서 밀어주는 일이 없이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족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거야..”(사례 7)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로 자녀들이 성장한 중년 이후에 여성이 의원생활에 입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홍미화(1998)의 지적처럼 나이가 먹어야 의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여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50대가 넘어야 하는 거지. 내 주장은 나는 그래. 3-40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든지 해야지 가정을 포기할 활거나 직업을 포기할거냐 뭐냐? 50대 나이 여자만큼은 50대가 넘어서 어느 정도 어머니 손길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장가를 간다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런 후에 해야지 그 전에 여자는 한국의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초인적인 사람이 아닌 한. 남편이 아주 잘 거들어주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육아를 책임지기 때문

에, 출산하고 임신하고, 여자가 하지 암만 남자가 자상하고 다 해준다고 해도 그건 못해주거든. 그럼 그건 누가해야 하나. 여자가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느님이 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때에 그걸 반분을 해줬으면 하지만 그건 다 여자 몫으로 행 놔둔데 여자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이게 끝나야 다른 일을 할꺼 아니? 그래서 50대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사례 8)

이와 같이 여성 정치인은 여성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흔히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三多)의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도 왕성하며,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타 지역의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서로 잘 알며, 여자끼리의 사회관계망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제주도의 여성 정치인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여성의 정치활동을 용인하지 않는 불리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높고 의식이 많고. 정치하면 남성이 하는 전유물로..”(사례 3)

“제주도라는 것 때문에 여성이 강하기도 하고 여성의 색깔이 강하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사례 4)

“여성정치가라면 제주도에서는 약간 우러러 보면서도 조금 또 밀고도 불려고도 하고 좁 또 내리칠려고도 하고...제주도에서는 여성정치인이 되기가 좀 힘들어”(사례 7)

위와 같은 지적은 제주도와 제주도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달리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주도 역시 다른 타 지역과 동일하게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나아가 여성 자신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직결된다.

“옛날에는 그 여자보다도 가족이라든가 남편의 힘을 많이 보잖아. 이제는 그 여자 자체로서의 능력을 보고 또 여자도 능력 있는 여자는 남자 못지 않게 많은 조직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여성이 반이 넘는 세대이고 여자들이 남자 말을 따르는 세대가 아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조직적이고 잘 하나?”(사례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정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취약점 내지 사회지원의 부족에서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성의 능력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네트워킹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의 정당체제가 남성중심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의 학연 지연 뭐 혈연으로 중심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깐 전부 사람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체제에서 여성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서면요구하고 찾아가고 준비할 때는 몇 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질 때. 그럴 때 좀 황당함을 느껴요. 우리 여성이 일하는 방법과 남성들이 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는 것 같아서 회의도 느끼고 가슴이 아파요. 제일 안타깝습니다.”(사례 3)

“여성들에게 여성후보가 나왔을 때 국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 아니면 여성들이 뽕뽕 뽕뽕 해서 네트워킹.. 여성이 연계해서 여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히, 제주도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높고 의식이 많고.. 정치하면 남성이 하는 전유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구 의원 없는 곳이 제주도 밖에 없어요. 특히, 기초의회 시의회 군의회 여성의원이 없는 곳이 제주도밖에 없어요... 여성의 세력이 굉장히 약한 곳이 제주도예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개척해 나가야 ...우리나라의 희망은 여성”(사례 4)

“젊었을 때는 타의에 의해가지고 정당생활을 좀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정당생활을 다시 한번 하다보니깐 뒤에서 보는 눈이 아이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쉴 나인데 왜 정당생활을 하느냐고 편잔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당생활도 생각이 있으면 좀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사례5)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면담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화를 지적하였다.

“인내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싫어도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공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들”...(사례 2)

“그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정치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외적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 이게 객관적인가 공정한가 항상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의 폭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겪게 되니깐. 생각하는 것도 좀 너그러워진 부분도 있고... 많은 것을 포용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

구나 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사례 3)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것, 포용력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함.. 굉장히 성격적인 면에서 내 성격 죽이고.. 보는게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사례 4)

말하자면 여성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문화에 맞서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인내심, 이해심 등의 포용적인 태도와 같이 여성의 중요한 자질이나 덕목을 갖추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여성에게 다소 배타적이고 그래서 선구자적인 활동인 정치활동을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이라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스스로 여성다움(feminity)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참여는 20세기 후반 사회변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여성의 정치활동은 여성의 권리임과 동시에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의사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회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많은 인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은 경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활동상 특성 때문에 경제활동에 비해 여성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국한시키려는 사회문화적 관념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 정치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활동에서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성 정치인의 가정생활과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성의 정치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제주도에서 의원 활동을 직접 하였거나 정당활동 및 단체장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여성 정치인으로 한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8명이었으며, 첫째, 개인적 상황, 둘째, 집안일의 수행방식과 부부 및 자녀와의 생활에 대한 가정생활, 그리고 셋째,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관해 심층면담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조사내용은 녹음 후 전체 내용을 기술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성 정치인은 개인적 의지보다는 주변의 권유 내지 상황적인 이유와 같은 소극적 경로를 통해 정치활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는 남성 정치인과 달리 여성이 정치가로서 정체감을 가질 수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지 교육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 정치인은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시댁 및 친정 등의 친척으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이러한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취업 여성이 가족, 친척을 제외하고 타인이나 민간 시설의 도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성 정치인은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미지관리가 필요하고,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가족, 친척 등에게 의존하거나 혼자 집안일을 수행하는 등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정치인을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해도 현재 여성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이해하는 지지자였으며, 집안일을 분담하는 협력자였다. 자녀는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중역할의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성장한 자녀는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자가 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가정생활과 정치활동의 이중역할에서 오는 부담과 역할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정치인이 취업 여성보다 더 긴 사회생활과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요구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여성으로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여성 정치인은 여성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문제는 여성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지원 부족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용적인 것과는 달리 제주도의 가부장적 사회문화로 인해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지역적 특성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 정치인은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인내심 등의 여성적 특징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스스로 여성다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여성 정치인이 여성에게 배타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사회활동에 뛰어드는 선도자적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은 여성적이어야 하며, 가정의 역할이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성역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성을 구별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필요하며, 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여학생의 자기표현과 리더쉽교육 및 학교내에서의 임원활동, 나아가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의 인턴쉽교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의식 제고와 함께 여성 정치인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은 스스로 정치활동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고 정치적 능력이 있는 여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회,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나 여성정치인을 위한 특별기금 등은 여성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여성 정치인의 이중역할 부담과 역할갈등은 기본적으로 가정내 역할,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직장탁아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탁아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자녀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을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면, 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타인이나 민간 시설 등의 여러 대안 중에서 집안일에 대한 도우미나 대리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여성 정치인끼리의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 정치인들간의 사회관계망은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해결해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체 간의 강한 연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자 자신이 조사대상자와 가졌던 오랜 시간의 유대감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특성상 자신들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밝히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근숙(2001).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실태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원홍(1996). 국회의원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3) 김윤주(1997). 맞벌이부부의 자녀 대리양육 형태 및 요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준섭(2003). 전후 가족 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변화가 일본정치에 끼친 영향.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 18호.
- 5) 김지선(200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김혜연(1995).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 15 호, 141-168.
- 7) \_\_\_\_\_(1996).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단체 Network Movement에 의한 가능성 탐색. 제주리뷰 1호, 42-54.
- 8)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 : 신평출판사.
- 9) 박연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백영옥(2001). 2002년을 향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서울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 11) 소정희(1990). 한국 여성정치인의 출신 배경과 의회진출 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7집, 137-155.
- 12)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 제주문화.
- 13) 염미경(1996).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과정.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 7(1), 209-238
- 14) \_\_\_\_\_(1997). 지방의회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 정당, 여성단체, 여성후보자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 과학연구 8(1), 197- 223.
- 15) 이범준(편)(1998).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 : 나남출판사.
- 16) 이병화(199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제 29 편, 175- 207.
- 17) 이정자(1992). 한국여성의 의회 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진(2000).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춘호(198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장공자(편)(1998). 새로운 정치학. 서울 : 인간사랑.
- 21) 정선화(1994). 기혼취업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요구조사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2000). 2000 제주여성통계연보. 제주도 : 여성교육문화센터.
- 23) 진은희(2001). 한국여성의 지방정치참여확

- 대 연구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한국여성개발원(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25) \_\_\_\_\_(2003). 2003 여성통계연보.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26) 홍미화(1998).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27) Devitt, J.(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 Women's Executive Leader-  
ship and the Press. Washington D.C. : The  
Women's Leadership Fund.
- 28) Scharrer, E. and K. Bissell(2000). Overcoming  
Traditional Boundaries : the Role of Political  
Activity in Media Coverage of First Ladies.  
Women & Politics, 21(1), 55-83.
- 29) 유네스코보고서, <http://www.unesco.org>
- 30) 인간개발보고서(UNDP), <http://root.re.kr>.
-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32) 한국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